

한국문학의 탈식민주의 비평·연구사적 검토

고 현 철*

차 례

- | | |
|---------------------|-----------------------|
| 1. 서론 | 4. 탈식민주의 비평 및 연구의 문제들 |
| 2. 탈식민주의 이론비평 및 연구사 | 5. 결론 |
| 3.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사 | 참고문헌 |

1. 서론

이 논문은 필자가 발표한 비평문 「탈식민주의와 현대시 비평」의¹⁾ 연장선에서 씌어진 것이다. 탈식민주의를 현대시의 실제비평과 연구에 국한하여 연관시켰던 글을 현대소설의 실제비평과 연구까지 아울러 한국문학에 대한 실제비평과 연구로 확대시켜 사(史)적으로 살펴보아 그 결과를 정리하고, 탈식민주의 이론비평 및 연구에 대해서는 번역과 정리 및 전개를 사(史)적으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탈식민주의의 용어·시기 구분·전략을 거쳐 그것의 이론적 맥락까지를 구성함으로써 한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의 비평 및 연구사를 검토한 글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탈식민주의 비평 및 연구를 수행할 때 그 바탕에 두어야 할 문제들을 보완하여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시와 사상』 제30호(2001. 여름).

탈식민주의에 대한 번역과 정리, 이론비평 및 연구 그리고 실제비평 및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이제 탈식민주의 비평 및 연구는 우리에게도 낯익은 풍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거 식민지 시대를 겪어 넘겼으며 현재 서구 중심의 근대를 비판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탈식민주의 비평 및 연구는 기존의 문학연구방법론과 이에 따른 문학담론과 같이, 하나의 방법론과 담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앞을 비춰서 그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론과 담론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비평 및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탈식민주의가,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탐색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참조해야 할 비평 및 연구의 이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탈식민주의는 그동안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주목과 마땅히 수행되어야 할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의 문학이론이나 방법론 가운데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 생태주의, 페미니즘에 비하면 탈식민주의는 그 활용이 미진해 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식민지와 근대가 겹쳐진 시대를 겪었고 서구의 근대와는 다른 근대를 상정하기도 한 우리에게 있어, 근대성에 대한 성찰은 마땅히 탈식민주의와 연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서구와는 입장과 문화가 다른 우리에게 있어,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와 연관되어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으로 부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렇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도 이제는 탈식민주의 문학이론과 방법론이 의도적으로 부각되어 한국문학의 비평 및 연구에 제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이 한국문학에 대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탈식민주의의 비평 및 연구를 사(史)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까닭은 현 단계의 이러한 문제의식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비평 및 연구사 검토는 이론비평 및 연구사와 실제비평 및 연구사로 나누어 이론에 대한 비평 및 연구를 검토한 뒤에 한국 문학에 대한 실제 분석 및 해석으로 이루어진 비평 및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론비평 및 연구와 실제비평 및 연구를 사(史)적으로 대비시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가 보다 진척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2. 탈식민주의 이론비평 및 연구사

이론비평 및 연구사는, 탈식민주의 이론이 서양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먼저 제시되어 우리에게 번역이나 이에 대한 비평 및 연구 형식으로 수용이나 정리 및 전개된 것이므로 이론 번역과 이론비평 및 연구의 정리와 전개를 사(史)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짚어야 할 용어 · 시기 구분 · 전략을 검토한 뒤 탈식민주의 이론을 하나의 맥락으로 구성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번역

우리에게 있어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번역과 이에 따른 이론의 수용은, 일반적으로 탈식민주의가 본격적으로 의식화되고 정립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저서로 평가받고 있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박홍규에 의해 번역된 1990년대 초반 이후가 될 것이다.²⁾

그 이후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번역서는 다음과 같이 출간되어 있다. 총괄적인 탈식민주의 문학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는 빌 애쉬크로프트 외 2인의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이 이석호에 의해,³⁾ 탈식민주의 정립의 출발점이 되는 ‘오리엔탈리즘’의 문제를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재일 한국인 2세라는 입장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강상중의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가 이경덕과 임성모에 의해,⁴⁾ 탈식민주의의 심리학적 근원을 밝힌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 이석호에 의해,⁵⁾ 아프리카의 입장에서 탈식민주의 문학이론을 정립한 응구기 와 씨옹오의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과 치누아 아체베의 『제3세계 문학과 식민주의 비평 - 희망과 미래』가 이석호에 의해,⁶⁾

2) Edward W. Said, 『Orientalism』(Patheon Books, 1978).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1991).

3) Bill Ashcroft ·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 『The Empire Writes Back :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Routledge, 1989). 이석호 역,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민음사, 1996).

4) 姜尙中(이경덕 · 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7).

5) Frantz Fanon, 『Black Skin, White Masks』(1952).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민간사랑, 1998).

탈식민주의의 배경과 쟁점 및 주제를 인도 출신이라는 동양인의 입장에서 새롭게 구성하여 정리하려고 한 릴라 간디의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가 이영옥에 의해,⁷⁾ 그동안 이루어진 탈식민주의 이론의 전개를 전체 맥락 속에서 체계화하려 한 바트 무어 - 길버트의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가 이경원에 의해,⁸⁾ ‘오리엔탈리즘’뿐만 아니라 ‘옥시덴탈리즘’도 탈식민주의 이론 구성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함을 밝히고 있는 샤오메이 첸의 『옥시덴탈리즘』이 정진배와 김정아에 의해,⁹⁾ 번역 이론을 탈식민주의 이론과 연관시켜 탈식민주의의 입장에서 번역의 전환점을 모색하려 한 더글러스 로빈슨의 『번역과 제국 - 포스트식민주의 이론 해설』이 정혜옥에 의해¹⁰⁾ 번역되어 나와 있다.

그리고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번역 논문은 다음과 같이 발표되어 있다. 헬렌 티핀의 「탈식민주의 문학과 반언술행위」가 성경준에 의해, 스티븐 슬레먼의 「제3의 기념비들 -탈식민적 글쓰기의 알레고리와 반언술행위」가 강규한에 의해, 휴스틴 베이커의 「캘리번의 삼중의 역할과 탈식민주의」가 최예정에 의해, 에드나 아이젠버그의 「보르헤스, 탈식민주의 이론의 선구자」가 김명주에 의해 번역되어 나와 있다.¹¹⁾ 린다 허천의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적 상황 : 산적한 난제들」이 강우성에 의해,¹²⁾ 사라 슬레리의 「피부 깊이 만큼의 여자 - 페미니

-
- 6) Ngugi Wa Thiong'o, 『Decolonising the Mind :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Heinemann, 1986). 이석호 역,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인간사랑, 1999). Chinua Achebe(이석호 역), 『제3세계 문학과 식민주의 비평 - 희망과 미래』(인간사랑, 1999).
 - 7) Leela Gandhi, 『Postcolonial Theory : Critical Introduction』(Columbia Univ. Press, 1998). 이영옥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현실문화연구, 2000).
 - 8) Bart Moore-Gilbert, 『Postcolonial Theory : Contexts, Practices, Politics』(Verso, 1997). 이경원 역,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한길사, 2001).
 - 9) Xiaomei Chen, 『Occidentalism』(Oxford Univ. Press, 1995). 정진배·김정아 역, 『옥시덴탈리즘』(강, 2001).
 - 10) Douglas Robinson,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St. Jerome Publishing, 1997). 정혜옥 역, 『번역과 제국 -포스트식민주의 이론 해설』(동문선, 2002).
 - 11) 이상 Helen Tiffin, Stephen Slemon, Houston Baker, Edna Aizenburg의 논문 번역의 출처는 『외국문학』 제31호(열음사, 1992. 여름)임.
 - 12) Linda Hutcheon의 이 논문 번역의 출처는 『외국문학』 제43호(열음사, 1995. 여름)임.

즘과 탈식민주의적 조건」이 이효석에 의해 번역 발표되어 있고,¹³⁾ 마거릿 드래블의 「탈식민주의 상황에서 글쓰기」가 최영에 의해 번역되어 나와 있다.¹⁴⁾ 가야트리 스피박의 「세 여성의 텍스트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국제적 틀에서 본 프랑스 페미니즘」이 각각 윤정미와 정혜옥에 의해¹⁵⁾ 번역 발표되어 있다.

2) 이론비평 및 연구의 정리와 전개

탈식민주의 이론비평 및 연구에 대한 정리와 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저서로는 김의탁이 『탈식민주의와 현대소설 - 제3세계 문학과 영미 문학의 이해』에서 영미문학과 아프리카 문학의 관계를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살펴보고 있고, 『전환기의 영미문학 - 21세기 문화비평과 탈식민주의』에서는 탈식민주의와 21세기 문화비평을 연관시켜 살펴보고 있다.¹⁶⁾ 박지향이 『제국주의 - 신화와 현실』 가운데 한 장에서 제국주의와 탈식민주의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¹⁷⁾ 그리고 태혜숙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서 탈식민주의를 페미니즘과 연관시켜 살펴보고 있다.¹⁸⁾

탈식민주의 이론비평 및 연구에 대한 정리와 전개는 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김성곤의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은 탈식민주의 이론비평 및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보여주고 있고, 이경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의 입장에서 구성된 페미니즘 이론을 정리하여 살펴보고 있다.¹⁹⁾ 정형철의 「다름의 정치학 - 식민담론 비판으

13) Sara Suleri의 이 논문 번역의 출처는 『오늘의 문예비평』 제17호(1995. 여름)임.

14) 2000년 서울 국제문학포럼에서 발표된 Margaret Drabble의 논문 번역의 출처는 『경계를 넘어 글쓰기 - 다문화세계 속에서의 문학』(민음사, 2001)임.

15) Gayatri Spivak의 논문 번역의 출처는 각각 『외국문학』 제31호(열음사, 1992. 여름)과 유계분 역음,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현대미학사, 2001)임.

16) 김의탁, 『탈식민주의와 현대 소설 - 제3세계 문학과 영미 문학의 이해』(자작아카데미, 1998). 김의탁, 『전환기의 영미문학 - 21세기 문화비평과 탈식민주의』(한신문화사, 1999).

17) 박지향, 『제국주의 - 신화와 현실』(서울대 출판부, 2000).

18)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여이연, 2001).

19) 두 논문의 출처는 『외국문학』 제31호(열음사, 1992. 여름)임.

로서의 글쓰기를 위하여」는 탈식민주의를 요약하면서 비판담론으로서 탈식민적 글쓰기를 모색하고 있다.²⁰⁾ 권택영의 「탈식민주의와 문화 비평 - 이론과 실천」은 탈식민주의의 배경과 대표적인 이론가의 이론을 살펴보고 있다.²¹⁾ 이경원의 「저항인가, 유희인가? :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은 탈식민주의의 전개 및 변화와 담론적 실천의 주체 문제를 반성적으로 살펴보고 있다.²²⁾ 이경원의 「프란츠 파농이 남긴 탈식민적 유산」과 「프란츠 파농과 정신의 탈식민화」와 「그들의 테크놀로지와 우리의 이데올로기 - 포스트모던 시대의 '파농주의」는 탈식민주의의 심리학적 근원이 되는 프란츠 파농의 이론을 새삼 되돌아보면서 역사성과 실천성을 잃어가고 있는 탈식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²³⁾ 하정일의 「민족문학론의 역사와 탈식민성」은 탈식민주의에서 민족문학론의 전망을 모색하고 있는 글이고, 「복수(複數)의 근대와 민족문학」은 이 논지와 연관시켜 복수의 근대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와 다른 근대의 문제에서 민족문학론의 전망을 모색하고 있다.²⁴⁾ 그리고 정정호의 「전지구화 시대의 '탈'식민 이론의 과제 - 탈근대 생태론으로 '근대'를 포월하기」는 탈근대론의 방향을 탈식민주의와 생태론의 연관성 속에서 모색하고 있다.²⁵⁾ 박완서의 「포스트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글쓰기」는 자신의 글쓰기를 탈식민주의와 연관해서 밝히면서 모색하고 있다.²⁶⁾ 하정일의 「한국문학과 탈식민」은 한국문학에서 탈식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²⁷⁾

논문 형식으로 발표된, 탈식민주의의 개별 이론가에 대한 이론비평 및 연구에 대한 정리와 전개는 다음과 같다. 민승기의 「바바의 모호성」, 박상기의 「바바의 후기식민주의」, 이경원의 「탈식민주의론의 탈역사성 - 호미 바바의 '양면

20) 『오늘의 문예비평』 제17호(1995. 여름).

21) 『현대지사상』 제26호(고려원, 1996. 봄).

22) 『문학과 사회』 제42호(문학과지성사, 1998. 여름).

23) 세 논문의 출처는 각각 『비평과 이론』 제5집(비평과이론학회, 1999. 겨울)와 『실천문학』 제58호(실천문학사, 2000. 여름)와 『비평』 제3호(비평이론학회, 2000. 하반기)임.

24) 두 논문의 출처는 각각 『비평』 제3호(비평이론학회, 2000. 하반기)와 『민족문학사연구』 제17호(민족문학사학회, 2000. 하반기)임.

25) 『비평』 제3호(비평이론학회, 2000. 하반기).

26) 『경계를 넘어 글쓰기 - 다문화세계 속에서의 문학』(민음사, 2001).

27) 『시와 사상』 제30호(2001. 여름).

성' 이론과 그 문제점, 이석구의 「전유의 틈새 : 호미 바바의 '식민주체'와 그 문제점」은 호미 바바의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 이론의 핵심 개념인 양가성(Ambivalence)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²⁸⁾ 고부응의 「에드워드 사이드 : 변경의 지식인」은 탈식민주의의 선구에 있는 사이드의 이론을 살펴보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이승렬의 「분신의 정치학 - 스피박의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읽기」는 탈구조주의를 수용한 스피박의 탈식민주의 이론이 정치(精緻)하긴 하지만 주체성과 실천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²⁹⁾

3) 탈식민주의의 용어, 시기 구분, 전략

앞에서 탈식민주의의 이론 번역과 이론비평 및 연구의 정리 및 전개를 검토하였지만, 이론비평 및 연구사는 그 맥락을 추적하여 살펴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의 이론을 하나의 맥락으로 구성하여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도록 할 생각이지만, 이를 위해 먼저 검토 및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이 항목에서 우선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것은 탈식민주의의 용어와 시기 구분 그리고 전략인데, 이는 탈식민주의의 이론의 맥락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먼저 검토 및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탈식민주의'라는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는 탈식민주의의 정체성과 지향점 나아가 이에서 비롯되는 용어상의 구분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탈식민주의는 영어의 'Postcolonialism'과 'Decolonialism' 양쪽의 번역어로 다 쓰이고 있다. 여기서 'Decolonialism'은 식민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가 강한 데 비해 그 내포가 좁은 용어이다. 이에 반해 'Postcolonialism'은 '후기'와 '탈'로 번역되는 'Post'에서 알 수 있듯이 내포가 넓은 반면 식민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명료성은 떨어지는 용어이다. 그런데, 'Postcolonialism'이, 앞에서 언급한 바트 무어-길버트의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를 비롯하여 탈식민주

28) 네 논문의 출처는 각각 『현대시사상』 제26호(고려원, 1996. 봄)와 『비평과이론』 제3호(비평과이론학회, 1998)와 『실천문학』 제50호(실천문학사, 1998. 여름) 그리고 『안과밖』 제8호(영미문학연구회, 2000. 상반기)임.

29) 두 논문의 출처는 『현대시사상』 제26호(고려원, 1996. 봄)임.

의에 대한 많은 논저에서 이왕에 널리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용어 자체가 탈식민주주의의 서로 다른 정체성과 지향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Postcolonialism'은 궁극적으로 '탈'을 지향해야 하므로 '후기식민주주의'가 아니라 '탈식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³⁰⁾

다음, 탈식민주주의를 시기 구분과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점이다. 이는 시기 구분의 문제가 탈식민주주의의 출발과 전환, 정체성과 지향점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탈식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에 의한 정치적 예속 상태인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정치적 예속 상태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문화적·경제적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한다. 빌 애쉬크로프트의 2인의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에서는 '탈식민주의'를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포괄하는 통칭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시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식민주의' 시기와 '후기 식민주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³¹⁾ 잔모하메드는, 탈식민주주의를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역시 정치적 독립을 분기점으로 하여 '지배적' 시기와 '헤게모니적'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³²⁾

탈식민주주의는 문화의 탈식민화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표로 삼는데, 이를 위한 대표적인 탈식민주주의의 문화 전략을 들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³⁾ 첫째는 '탈식민화'(Decolonization)인데, 이는 식민지 이전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다시 회복하거나 문화적 합병을 제안하는 방법을 말한다. 둘째는 '폐기'(Abrogation)인데, 이는 지배문화를 거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셋째는 '전유'(Appropriation)인데, 중심문화의 언어를 바꾸어서 재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넷째는 '되받아쓰

30) 'Postcolonialism'과 'Decolonialism'을 뚜렷이 구별하여, 'Postcolonialism'을 내세우고 있는 예는, Bill Ashcroft ·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 op.cit. 이석호 역,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이다. 'Decolonialism'을 내세우고 있는 예는, 한정일, 「민족문학론의 역사와 탈식민성」이다.

31) Bill Ashcroft ·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이석호 역), 앞의 책, 12쪽.

32) Abdul JanMohamed,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ist Literature」, 『Critical Inquiry』 12(Autumn 1985), pp.61~62.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앞의 책, 15쪽 참고.

33) Bill Ashcroft(이석호 역), 앞의 책, 65-192쪽. 김성곤, 위의 논문, 위의 책, 24~26쪽 참고.

기'(Write Back)인데, 지배언술에 의해 성전화된 텍스트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쓰면서 지배 언술의 음모와 허구성을 폭로하는 방법을 말한다.

빌 애쉬크로프트 의 2인의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에서는, '폐기'와 '전유'의 탈식민주의 문화 전략을 각각 폐쇄의 반동일화 주체의 담론과 비동일화 주체의 담론과 연관시키고 있다. 폐쇄는 주체가 구성되는 세 가지 기제에 따라 담론 양식을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는 순응적인 주체들의 양식인 동일화 담론인데,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담론 양식인 것이다. 둘째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반항적인 주체들의 양식인 반동일화 담론인데,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아예 거부하는 담론 양식인 것이다. 셋째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틀에 편승하여 내부에서 저항하는 주체들의 양식인 비동일화 담론인데,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표면적으로는 수용하면서 이면적으로는 거부하는 역설적인 통합의 담론 양식인 것이다.³⁴⁾ 탈식민주의의 문화 전략 가운데에서, 지배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폐기'는 반동일화 주체가 내세우는 반동일화 담론이 되고 지배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바꾸어서 재구성하는 '전유'는 비동일화 주체가 내세우는 비동일화 담론이 되는 것이다.

4) 탈식민주의 이론의 맥락

탈식민주의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발간 이후에 새롭게 발견되고 발명되어 전개된 이론이다. 여기서, 오리엔탈리즘이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양이 자신을 주체로 부각시키기 위해 그 이외의 지역을 타자로 분리하여 차별적인 서열체계에 우열의식을 심음으로써 지배를 공고히 해온 문화적 헤게모니의 장치를 말한다. 탈식민주의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에 저항하는 탈오리엔탈리즘적 사유를 밀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후 탈식민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근래에 번역된 바트 무어-길버트의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를 중심으로 하여 탈식민주

34) Michel Pêcheux, 『Language, Samantics and Ideology』(trans:Harbans Nagpal, St. Martin's Press, 1982), pp.155~170. Diane Macdonell(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한울, 1992), 49~56쪽.

의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바트 무어-길버트의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가, 원제목인 『탈식민주의 이론 : 맥락, 실천, 정치』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탈식민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이론적 실천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포괄하여 그 흐름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⁵⁾

바트 무어-길버트는 여기에서,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탈식민주의의 ‘시작’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여 『오리엔탈리즘』 이전에 제3세계 자체에서 이루어진 반식민적 민족주의의 전통을 탈식민주의 계보의 앞자리에 두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탈식민주의의 토대를 제3세계의 반식민적 민족주의에 두고 있는 것이다. 탈식민주의에서의 민족주의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서 비교문화적이고 통문화적인 민족주의를 지향한다.³⁶⁾ 또한 무어-길버트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탈식민주의의 분기점으로 보아 그 이전을 ‘탈식민주의 비평(Criticism)’ 시대, 그 이후를 ‘탈식민주의 이론(Theory)’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탈식민주의 비평’과 ‘탈식민주의 이론’을 시기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탈식민주의의 정체성과 지향점으로 확장시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탈식민주의 비평은 제3세계의 반식민적 민족주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항성을 뚜렷이 견지하고 있는 탈식민주의가 되고, 탈식민주의 이론은 탈구조주의와 해체론에 힘입어 이론적으로 세련되면서 저항성을 상당히 상실한 탈식민주의가 된다. 탈식민주의 이론은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에 따라 서양/비서양, 중심/주변, 지배/피지배의 이분법적 틀을 해체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보다 세련되었지만 저항성과 전복성이 되색되어 간 것이다.³⁷⁾ 릴라 간디의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에서는,³⁸⁾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그리고 지향점을 제3세계 민족주의와 서구 탈구조주의와 해체론의 구도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이후의 탈식민주의 비평은 씨웅오와 아체베 등이

35) Bart Moore-Gilbert, op.cit. 이경원 역, 앞의 책.

36) 「탈식민주의 시대의 글쓰기와 책읽기」 특집을 엮으며, 『외국문학』 제31호(열음사, 1992. 여름), 8~9쪽.

37) 이경원, 「저항인가, 유희인가? :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 앞의 책, 753~756쪽 참고.

38) Leela Gandhi, op.cit. 이영옥 역, 앞의 책.

전개시켜 왔고,³⁹⁾ 탈식민주의 이론은 바바와 스피박 등이 전개시켜 왔다.⁴⁰⁾ 그런데, 무어-길버트는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에서 결론적으로 탈식민주의 비평과 이론의 '변증법적 화해'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⁴¹⁾ 이는 탈식민주의 비평과 이론을 아우르는 탈식민주의 '비평이론'을 지향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현재 탈식민주의는 비평과 이론의 결합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릴라 간디의 『포스트구조주의란 무엇인가』에서는 탈식민주의의 나아갈 방향을 위한 토대로서 맑스주의와 탈구조주의 두 사유 양식의 종합 내지는 절충을 들고 있다.⁴²⁾ 그렇다 하더라도 탈식민주의 비평이론의 바탕은, 서양이 비서양에 부여한 타자화된 정체성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다시금 탈정체화시키고 서양에 의해 정전화된 텍스트 속에 교묘히 숨어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언술을 분석해서 폭로하고 이를 해체하여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근래에 나온 샤오메이 첸의 『옥시덴탈리즘』은,⁴³⁾ 동양이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서양을 다양한 방식으로 곡해하고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분석해 내고 있다. 물론 이 경우의 '옥시덴탈리즘'이 서양을 지배하기 위한 동양의 문화

39) Ngugi Wa Thiong'o의 탈식민주의 비평에 대해서는, Ngugi Wa Thiong'o, op.cit. 이석호 역,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 그리고 김의락, 『전환기의 영미문학 -21세기 문화비평과 탈식민주의』, 299~343쪽 참고. Chinua Achebe의 탈식민주의 비평에 대해서는, Chinua Achebe, 이석호 역, 『제3세계 문학과 식민주의 비평 -희망과 미래』 참고.

40) Gayatri Spivak의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윤정미 역, 앞의 논문과 정혜옥 역, 앞의 논문 참고. Gayatri Spivak은 서구 중심의 페미니즘이 제3세계의 식민지적 현실을 도외시하는 점을 비판하여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Gayatri Spivak의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이승렬, 앞의 논문과 태혜숙, 앞의 책, 73~87쪽. 그리고 Bart Moore-Gilbert(이경원 역), 앞의 책, 187~270쪽 참고.

Homi K. Bhabha의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민승기, 앞의 논문; 박상기, 앞의 논문; 이석구, 앞의 논문 그리고 이경원, 『탈식민주의론의 탈역사성 - 호미 바바의 '양면성' 이론과 그 문제점』과 Bart Moore-Gilbert(이경원 역), 앞의 책, 271~346쪽 참고.

41) Bart Moore-Gilbert(이경원 역), 앞의 책, 383~414쪽.

42) Leela Gandhi(이영옥 역) 앞의 책. 특히, 지은이의 「서문」을 통하여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43) Xiaomei Chen, op. cit. 정진배·김정아 역, 앞의 책.

적 체계모니의 장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일본이 근대 초기에 '오리엔탈리즘'을 역이용하여, 표면적으로는 서양에 대한 저항을 내세우면서 이면적으로 동양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한 바 있다.⁴⁴⁾ 여기서의 옥시덴탈리즘은, 동양(특히, 중국)이 서양이라는 타자를 자국 국민에 대한 내적 억압 기능을 수행하는 민족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곡해하고 활용한 억압의 담론인 관변 옥시덴탈리즘과 서양이라는 타자를 곡해하여 전체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인 억압에 저항하는 정치적 해방에 활용한 반관변 옥시덴탈리즘으로 분석해 보이고 있다.⁴⁵⁾ 이 경우, 동양은 능동적인 수용자로서 서양을 적극적으로 전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⁴⁶⁾ 이와 같이, 탈식민주의는 동양의 주체적인 입장에 서서 비평과 이론을 통합해 나가면서,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의 상호적인 복합성 속에서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3.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사

1) 외국문학의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사

한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사를 검토하기 전에 여기서 한국에서 수행된 외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성과를 먼저 사(史)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하지만, 한국문학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김성곤의 「탈식민주의적 책임기와 영문학 연구」는 셰익스피어의 「태풍」과 호손의 「주홍글자」와 포우의 「어서 가의 몰락」·「모르그 가의 살인사건」 등을 탈식민주의적 텍스트 해석의 문제와 연관하여 살펴보고 있고, 이흥필의 「달콤한 유혹과 고통스런 버터읽기 : 탈식민주의적 책임기의 한 방법」은 디포의 「로

44) 이 점에 대해서는, 姜尙中(이경덕·임성모 역), 앞의 책, 77~133쪽에서 잘 분석해 보이고 있다.

45) Xiaomei Chen(정진배·김정아 역), 앞의 책, 특히, 9~48쪽 참고.

46) 위의 책, 256쪽.

빈슨 크루소와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를 탈식민주의적 텍스트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고, 김순식의 「탈식민주의적 아프리카 담론의 한 전형 : 치누아 아체베의 작품세계」는 탈식민주의 이론가이기도 한 아체베의 「무너져 내리다」를 비롯한 소설 텍스트를 탈식민주의적 텍스트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고, 김창민의 「푸에르토리코 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 「저주받은 사랑」을 중심으로」는 푸에르토리코의 소설가 로사리오 페레의 소설 「저주받은 사랑」을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적 텍스트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⁴⁷⁾ 김순식의 「탈식민지시대의 시인 · 작가론」은 탈식민주의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셰이머스 히니, 데릭 월코트, 진 리스, 치누아 아체베, 나딘 고디머, 토니 모리슨, 살만 루시디 등을 살펴보고 있다.⁴⁸⁾ 박종성의 「탈식민주의 담론에서 제3의 길찾기 - 나이폴 『홍내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는 탈식민주의로 나이폴의 소설 「홍내내는 사람들」을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있다.⁴⁹⁾ 서강목의 「탈식민주의 시대에 다시 읽는 은구기」와 「민족문학과 근대성 - 응구기의 『마티가리』를 중심으로」는 아프리카의 탈식민주의 이론가이기도 한 응구기의 소설 「한 알의 밀」과 「피의 꽃잎」 그리고 「마티가리」를 분석 및 해석하고 있다.⁵⁰⁾

2) 한국문학의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사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먼저, 탈식민주의 이론에 따라 이루어진, 현대소설에 대한 실제비평 및 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성곤의 「빼앗긴 시대의 문학과 백 년 동안의 고독 - 현진건, 이상, 김승옥을 다시 읽으며」는 탈식민주의 이론에 따라 한국 현대소설 텍스트를 분석 및 해석하고 있는 선구적인 논문인데, 구체적으로는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 이상의 「날개」,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을 탈식민주의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다.⁵¹⁾ 송현호의 「채만식의 탈식민적

47) 이상 네 논문의 출처는 『외국문학』 제38호(열음사, 1994. 봄)임.

48) 『현대시사상』 제26호(고려원, 1996. 봄).

49) 『실천문학』 제55집(실천문학사, 1999. 가을).

50) 두 논문의 출처는 각각 『실천문학』 제55호(실천문학사, 1999. 가을)과 『안과밖』 제8호(영미문학연구회, 2000. 여름)임.

경향에 대한 고찰」은 판소리의 문체와 서사구조를 활용하고 있는 채만식의 소설을 탈식민주의의 논리로 살펴보고 있다.⁵²⁾ 송현호의 「근대 초기 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은 이해조의 「자유증」을 탈식민주의의 탈식민화의 전략으로 살펴보고 있다.⁵³⁾ 김성곤의 「중심과 주변, 탈식민주의적 텍스트 읽기」는 탈식민주의의 시각으로 현진건의 「불」·「술 권하는 사회」·「운수 좋은 날」과 이상의 「날개」 그리고 전광용의 「꺼삐단 리」를 살펴보고 있다.⁵⁴⁾ 장수익, 「식민주의를 벗어나는 고쳐의 여로」는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염상섭의 「만세전」을 분석 및 해석하고 있다.⁵⁵⁾ 이해년의 「한국문학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연구 - 아리랑, 태백산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중심으로」는 탈식민주의의 시각으로 조정래의 「아리랑」·「태백산맥」과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살펴보고 있다.⁵⁶⁾ 조보라미, 「최인훈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고찰」은 탈식민주의의 이론으로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총독의 소리」·「하늘의 다리」·「태풍」을 살펴보고 맺음말에서 최인훈의 회곡에 대한 탈식민주의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⁵⁷⁾ 하정일의 「분단의 형이상학을 넘어서 - 황석영론」은 탈식민주의의 논리로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을 분석 및 해석하고 있고,⁵⁸⁾ 하정일의 「염상섭 혹은 탈식민문학의 세계성」은 염상섭의 「만세전」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과 사회의 통일을 추구한 염상섭의 문학이 탈식민을 통한 주체적 근대의 가능성을 꾸준히 탐문해 왔다는 점에서 그 문학의 세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⁹⁾ 그리고 나병철의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는 탈식민주의 이론을 근대성·근대서사와 연관하여 고찰하고 탈식민주의의 논리와 시각에 따라 근대서사인 한국소설을 여러 양상으로 분석 및 해석하고 있는데,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를 책으로 묶어낸 성과에 해당한다.⁶⁰⁾

51) 『세계의 문학』 제62호(민음사, 1991. 겨울).

52) 『관악어문연구』 제17집(서울대 국문과, 1992).

53) 『아주어문연구』 제1집(아주대 국문과, 1994).

54) 『뉴미디어 시대의 문학』(민음사, 1996).

55) 『현대시사상』 제26호(고려원, 1996.봄).

56) 『한국문학논총』 제26집(한국문학회, 2000. 6).

57) 『관악어문연구』 제25집(서울대 국문과, 2000. 12).

58) 『실천문학』 제62호(실천문학사, 2001. 여름).

59) 『실천문학』 제66호(실천문학사, 2002. 여름).

다음, 탈식민주의 이론에 따라 이루어진, 현대시에 대한 실제비평 및 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현철의 「평등과 해방을 위하여, 굶은 현실의 치유를 위하여」에서는, 고정희의 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를 탈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해석하는데, 「폐기」와 「되받아쓰기」의 탈식민주의 문화전략에다가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적 문화 양식의 패러디가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동순의 「그 바보들은 더욱 바보가 되어간다」의 상당 부분을 「되받아쓰기」의 탈식민주의 문화전략으로 분석하면서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⁶¹⁾ 또한 고현철의 「한국 현대시의 장르 패러디 연구 - 담론양상을 중심으로」에서는, 1920년대 문화적 민족주의 민요시를 민족 문화의 회복을 통한 민족 주체 확립의 「탈식민화」 문화전략으로 분석 및 해석하고 있으며, 김지하의 담시를 판소리의 패러디로 파악하면서 여기에 서구 중심의 근대 비판을 수행하기 위한 「되받아쓰기」의 탈식민주의 문화전략이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⁶²⁾

김승희의 「김수영의 시와 탈식민주의적 반(反)언술」에서는, 김수영의 시세계를 세 시기로 나누고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분석 및 해석을 하고 있는데, 김수영의 시가 통문화적 혼종성 속에서 탈식민주의적 반언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⁶³⁾ 그리고 고현철의 「다친 무릎의 반(反)언술」에서는, 김승희의 시집 『빛자루를 타고 달리는 웃음』을 탈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탈식민주의적 반언술을 비동일화와

60)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문예출판사, 2001).

61) 『오늘의 문예비평』 제7호(1992.가을). 이 글은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평등과 해방의 정신」과 「현실의 다양성과 비판적 접근」의 두 글로 고현철, 『구체성의 비평』(전당, 1997)에 수록되어 있다.

62) 부산대대학원 박사논문(1995.8), 34~41쪽의 「탈식민화 전략과 민족 주체의 확립」과 117-120쪽의 「주체성 확립과 탈식민주의 전략」. 이 논문은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고현철, 『현대시의 패러디와 장르 이론』(태학사, 1997)의 제1부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Ngugi Wa Thiong'o(이석호 역), 앞의 책, 183쪽에서 웅구기는, 「김지하 시인이 한국의 신식민주의적 현실을 그려내기 위해 구전의 형식과 이미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구비전통에서 효과적인 무기 중의 하나는 풍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63) 『김수영 다시읽기』(프레스21, 2000).

반동일화의 주체 및 담론과 관련시켜 밝히고 탈식민주의적 반언술이 김승희의 시에서 아이러니와 풍자 그리고 패러디를 통하여 표출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⁶⁴⁾ 또한 하정일의 「탈식민의 시인 - 김남주에 대한 몇 가지 단상」에서는, 김남주의 시가 민족해방을 넘어 탈식민의 시각에서 자본주의의 근대에 대한 극복을 지향하고 있는 시임을 밝혀내고 있다.⁶⁵⁾ 김승희의 「어떻게 제국의 기호학을 검색하고 반언술을 만들 것인가」는 탈식민주의적 글쓰기를 살펴보고 반언술, 알레고리, 풍자 등으로 김수영과 신경림의 시 텍스트를 분석 및 해석하고 있다.⁶⁶⁾

3) 실제비평 및 연구사 검토의 결과

이상에서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를 사(史)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앞의 검토에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에서 크게 짚어볼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식민주의 이론에 따른 한국문학에 대한 실제비평 및 연구는 아직 빈곤한 것이 현 실정이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외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한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는 더욱 미미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둘째, 한국에서 수행된 외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는 외국에서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널리 분석 및 해석되어진 작가나 텍스트에 집중되어 온 상태이다. 하지만, 이 실제비평 및 연구는 한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에 상당한 참고의 틀을 제공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탈식민주의 이론에 따른 한국문학에 대한 실제비평 및 연구의 빈곤은 한국 현대소설에 대한 실제비평 및 연구보다도 한국 현대시에 대한 실제비평 및 연구에서 더욱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현대회곡에 대한 본격적인 실제비평 및 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이다.

넷째, 한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 실제비평 및 연구는 빈곤한 가운데에서도

64) 『현대시』 제137호(한국문연, 2001. 5).

65) 『시와사람』 제21호(시와사람사, 2001. 여름).

66) 『시와 사상』 제30호(2001. 여름).

분석 및 해석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탈식민주의의 여러 개념 및 전략과 글 쓰기의 방법을 탈식민주의의 관점과 연관지어 활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째, 한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의 실제비평 및 연구서가 출간된 것은, 아직 한 권에 불과하며 또 비록 소설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탈식민주의에 따른 한국문학에 대한 실제비평 및 연구에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탈식민주의의 비평 및 연구의 문제들

이상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의 비평 및 연구를 살펴보았거니와, 이론 비평 및 연구이든 실제비평 및 연구이든 한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의 비평 및 연구를 하는 데에 가장 기저가 되는 문제들을 상정할 수가 있다. 이는 탈식민주의의 관점과 여러 개념 및 전략과 연관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것인데, 탈식민주의의 비평 및 연구의 밑바탕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구성되어야 하는 탈식민주의의 이론에 따라 그 비평 및 연구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문제들인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탈식민주의의 비평 및 연구에서 이 문제들을 먼저 그 기저에 충분히 두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여기에 따로 정리를 하여 비평 및 연구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탈식민주의와 근대성

탈식민주의는 근대에 와서 이루어진 서양의 지리적 확장과 식민지주의, 인종 차별주의, 자민족중심주의와 결부된 지배의 양식인 오리엔탈리즘⁶⁷⁾ 저항하는 탈오리엔탈리즘적 사유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서양 중심의 근대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탈식민주의를 탈근대와 연관하여 살펴보고 있는 논의나 복수

67) 姜尙中(이경덕·임성모 역), 앞의 책, 187쪽.

(複數)의 근대와 연관하고 있는 논의는 바로 서구 중심의 근대에 대한 비판을 거저에 깔고 있는 것이다.⁶⁸⁾ 복수의 근대라는 개념은 논자가 밝히고 있듯이, 세계체제의 문화적 탈식민화가 가속되는 시기에 문명의 단수적 용법과 복수적 용법의 구별이 중요하다는 윌러스틴의 논지에서 활용해 온 개념에 해당한다.⁶⁹⁾

식민지와 근대(성)의 연관성 문제는, “식민지가 어떤 의미에서 ‘근대의 실험실’이었다고 한다면, 식민지와 동떨어진 근대의 담론 따위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는 말처럼,⁷⁰⁾ 너무도 밀접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 더구나, 식민지 시대에 근대를 처음으로 경험하여 ‘식민지적 근대’의⁷¹⁾ 과거를 지닌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사적 차원에서 볼 때, 서구의 근대화 프로젝트 속에는 비서구 사회에 대한 식민화를 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서구적 근대성과 식민지적 근대성은 서로 연관되어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다.⁷²⁾ 그리고 그 극복 방향을 탈식민주의에서 찾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2) 탈식민주의와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서양 중심의 문화에 대한 서양 스스로의 성찰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비서양에서 서양 중심의 문화를 비판하려고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 개념에 속한다. 그런데, 다문화주의는 세계화의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의 논리를 배후에 깔고 문화 상품의 세계화로 작동하기 쉬운 점이 있음을 간과하

68) 고현철, 「동양의 탈근대적 주제 모색과 양가성」, 『한국문학논총』 제24집(한국문화회, 1999. 6), 1-6쪽. 정정호, 앞의 논문, 앞의 책, 419쪽. 여기서, 정정호는 ‘근대’와 ‘식민’의 태생적 동류성은 ‘탈’식민 전략에 반드시 ‘탈’근대 전략을 수반하게끔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정일, 「복수(複數)의 근대와 민족문학」, 앞의 책 참고.

69) Immanuel Wallerstein(김시완 역), 『변화하는 세계체제 : 탈아메리카와 문화이동』(백의, 1995), 311~319쪽.

70) 姜尙中(이경덕·임성모 역), 앞의 책, 15쪽.

71) 정태현,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화 모순과 그 실체」,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역사비평사, 1996), 242~243쪽. 여기서 ‘식민지적 근대’를,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행한 근대화 정책과 그 결과 나타난 제 형태’라고 개념 규정하고 있다.

72) 조형근, 「역사 구부리기 :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새길, 1997), 34~38쪽.

지 말아야 한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오리엔탈리즘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지닌 서양의 자본과 기술이 다국적이나 초국적을 내세우면서 자기 중심성을 은폐하면서 비서양을 지배하듯이, 서양의 지배 문화 속에 비서양의 많은 문화를 흡수하게 될 가능성과 불가피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⁷³⁾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속성을 경계하면서 서양 문화에 대한 비판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다문화주의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에 입각해서 다문화주의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3) 탈식민주의와 문화적 혼종성

탈식민주의는 타문화 나아가 서양 문화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탈식민주의는 궁극적으로 이들 문화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통문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적 혼종성은 탈식민주의의 한 양상이 된다. 그런데, 이 혼종성이 어느 입장에서 어떤 결합방식을 취하는 것이냐 하는 데에 따라 탈식민주의의 정체성과 지향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주의를 해야 한다. 식민주의 또는 지배적 시기에 이 혼종성은, 피식민지인과 피식민 사회를 제국의 지배 권력에 동화·통합시켜 식민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분석된다.⁷⁴⁾ 그래서 후기 식민주의 또는 헤게모니 시기에 이 혼종성도, 서양의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서양을 중심으로 동양을 주변으로 결합시킨다면, 서양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새로운 오리엔탈리즘이 될 소지를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탈구조주의와 해체론의 세례 속에 구성된, 탈식민주의 비평이 아닌, 탈식민주의 이론 자체가 바로 제3세계의 문화 이론을 서양 중심으로 전유함으로써 서양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 이론으로 그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⁷⁵⁾ 이 탈식민주의 이론은 서양에서 이주한

73) 하정일, 「복수(複數)의 근대와 민족문학」, 앞의 책, 53쪽. 임현진, 「사회과학에서의 근대성 논의 - '근대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새길, 1997), 197쪽. 이경원, 「그들의 테크놀로지와 우리의 이데올로기 - 포스트모던 시대의 '파농주의」, 앞의 책, 186쪽. Bart Moore-Gilbert(이경원 역), 앞의 책, 293쪽.

74) Bart Moore-Gilbert(이경원 역), 앞의 책, 432~433쪽.

비서양 지식인의 삶의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저항성이 상실된 탈식민주의일 뿐이다.

그러면, 저항성을 견지한 탈식민주의가 되려면, 문화적 혼종성은 어느 입장에서 어떤 결합방식을 취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는 다름 아니라, 동양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서양을 전유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문화적 혼종성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빌 애쉬크로프트 외 2인이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에서 내세운 ‘전유’의 개념 자체가 이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다. 비동일화 주체와 담론과 연관되는 이러한 비판적 전유는, 서구의 이론을 이용하여 서구를 비판하는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다.⁷⁶⁾ 근래에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근대사서를 분석하고 해석한 저서를 펴낸 나병철이 이 저서에서 내세우고 있는, 안과 밖을 뒤섞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부를 주체화시키는 ‘타자성의 주체’와 경계선 안팎을 넘나드는 ‘탈중심화된 민족 담론’도⁷⁷⁾ 이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판적 전유와 연관되는 문화적 혼종성을 내재한 탈식민주의는 탈식민주의 이론의 한 토대를 탈식민주의 비평의 정신 속에 흡수한 탈식민주의 비평이론의 한 양상이 될 것이다.

4)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기타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연관성은 진작부터 이론화되어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으로 전개되어 왔다.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은, 근대의 역사가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사로 압축할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사도 제국주의자와 식민지인의 관계와 같다는 인식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은, 서구 중심의 페미니즘이 제3세계의 식민지적 현실을 도외시하는 점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고 있다.⁷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탈식민주의

75) Bart Moore-Gilbert(이경원 역), 앞의 책, 350~351쪽. 하정일, 「복수(複數)의 근대와 민족문학」, 앞의 책, 56쪽. 윤지관, 「토론 : 지구화와 탈식민주의」, 『경계를 넘어 글쓰기 -다문화세계 속에서의 문학』, 783쪽.

76) 이경원, 「저항인가, 유희인가? :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 앞의 책, 764쪽. 이경원, 「그들의 테크놀로지와 우리의 이데올로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파농주의」, 앞의 책, 186~189쪽.

77) 나병철, 앞의 책, 87쪽. 227쪽.

적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논자는 인도 출신인 스피박이고 한국에서는 고정희와 김승희가 뚜렷한 시적 성취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에서 암시받을 수 있듯이, 탈식민주의는 제국주의적 주체와 식민화된 타자의 관계로 상정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에서 식민화된 타자가 부각시킬 수 있는 비평이론으로 그 외연을 확장할 수가 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서 빚어진,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이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와도 같은 상황에서는, 지역문학의 논리도 탈식민주의와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결 론

이론비평 및 연구이든 실제비평 및 연구이든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의 비평 및 연구는, 한국 현대문학을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 및 해석을 함으로써 수행될 수도 있다. 이때 탈식민주의의 비평이론의 여러 개념과 전략 그리고 글쓰기 방법 등이 탈식민주의의 관점과 연관되어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비평 및 연구 작업은 우리의 입장을 뚜렷이 내세워 근대성, 다문화주의, 문화적 혼성성, 옥시덴탈리즘 등과 연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탈식민주의의 비평이론의 중요성에 비해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비평 및 연구가 빈곤한 현 상황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나아가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한편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인과 소설가들이 탈식민주의적 인식을 계고하여 그 문학적 성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탈식민주의적 인식에 따른 문학적 형상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탈식민주의의 문학적 성취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식민주의는, 궁극적으로는, 억압된 것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국주의적 억압에서 해방된, 차이를 가진 여러 주변 주체들의 공존을 위하여, 현 상황에서는 지배인술에 대항하는 많은 반담론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양한 주체와 문화들이 각각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융합

78) 이경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앞의 책, 83쪽. 유제분 엮음,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 19쪽.

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 비평 및 연구는, 이러한 목표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견지한 바탕 위에서 그 세부에 있어 다양하게 수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고부응, 「에드워드 : 변경의 지식인」, 『현대시사상』 제26호(고려원, 1996. 봄).
- 고현철, 『평등과 해방을 위하여, 굵은 현실의 치유를 위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제7호(1992. 가을).
- 고현철, 『한국 현대시의 장르 패러디 연구 -담론양상을 중심으로』(부산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5. 8).
- 고현철, 『구체성의 비평』(전망, 1997).
- 고현철, 『현대시의 패러디와 장르 이론』(태학사, 1997).
- 고현철, 「동양의 탈근대적 주제 모색과 양가성」, 『한국문학논총』 제24집(한국문학회, 1999. 6).
- 고현철, 「'다친 무릎'의 반(反)연술」, 『현대시』 제137호(한국문연, 2001. 5).
- 고현철, 「탈식민주의와 현대시 비평」, 『시와사상』 제30호(2001. 여름).
- 권택영, 「탈식민주의와 문화비평 - 이론과 실천」, 『현대시사상』 제26호(고려원, 1996. 봄).
- 김성곤, 「빼앗긴 시대의 문학과 백 년 동안의 고독 -현진건, 이상, 김승옥을 다시 읽으며」, 『세계의 문학』 제62호(민음사, 1991. 겨울).
-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제31호(열음사, 1992. 여름).
- 김성곤, 「탈식민주의적 채워기와 영문학 연구」, 『외국문학』 제38호(열음사, 1994. 봄).
- 김성곤, 「중심과 주변, 탈식민주의적 텍스트 읽기」, 『뉴미디어 시대의 문학』(민음사, 1996).
- 김순식, 「탈식민주의적 아프리카 담론의 한 전형 : 치누아 아체베의 작품세계」, 『외국문학』 제38호(열음사, 1994. 봄).

- 김순식, 『탈식민주의시대의 시인 · 작가론』, 『현대시사상』 제26호(고려원, 1996. 봄).
- 김승희, 「김수영의 시와 탈식민주의적 반(反)언술」, 『김수영 다시읽기』(프레스 21, 2000).
- 김승희, 「어떻게 제국의 기호학을 검색하고 반언술을 만들 것인가」, 『시와사상』 제30호(2001. 가을).
- 김의락, 『탈식민주의와 현대소설』(자작아카데미, 1998).
- 김의락, 『전환기의 영미문학 -21세기 문화비평과 탈식민주의』(한신문화사, 1999).
- 김창민, 「푸에르토리코 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 「저주받은 사랑」을 중심으로」, 『외국문학』 제38호(열음사, 1994. 봄).
-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문예출판사, 2001).
- 민승기, 「바바의 모호성」, 『현대시사상』 제26호(고려원, 1996. 봄).
- 박상기, 「바바의 후기식민주의」, 『비평과이론』 제3호(비평과이론학회, 1998).
- 박완서, 「포스트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글쓰기」, 『경계를 넘어 글쓰기 -다문화세계 속에서의 문학』(민음사, 2001).
- 박종성, 「탈식민주의 담론에서 제3의 길찾기 -나이폴 『홍내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제55호(실천문학사, 1999. 여름).
-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서울대 출판부, 2000).
- 서강목, 「탈식민주의 시대에 다시 읽는 은구기 -『한 알의 밀』과 『피의 꽃잎』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제55호(실천문학사, 1999. 가을).
- 송현호, 「채만식의 탈식민적 경향에 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 제17집(서울대 국문과, 1992).
- 송현호, 「근대 초기 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아주어문연구』 제1집(아주대 국문과, 1994).
- 유계분 엮음,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현대미학사, 2001).
- 윤지관, 「토론 : 지구화와 탈식민주의」, 『경계를 넘어 글쓰기 -다문화세계 속에서의 문학』(민음사, 2001) .
- 이경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외국문학』 제31호(열음사, 1992. 여름).
- 이경원, 「저항인가, 유희인가? :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 『문학과사회』 제2호(문학과지성사, 1998. 여름).

- 이경원, 「탈식민주의론의 탈역사성 -호미 바바의 '양면성' 이론과 그 문제점」, 『실천문학』 제50호(실천문학사, 1998. 여름).
- 이경원, 「프란츠 파농이 남긴 탈식민적 유산」, 『비평과 이론』 제5집(비평과 이론학회, 1999. 겨울).
- 이경원, 「프란츠 파농과 정신의 탈식민화」, 『실천문학』 제58호(실천문학사, 2000. 여름).
- 이경원, 「그들의 테크놀로지와 우리의 이데올로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파농주의」, 『비평』 제3호(비평이론학회, 2000. 하반기).
- 이석구, 「전유의 틈새 : 호미 바바의 '식민주체'와 그 문제점」, 『안과밖』 제8호(영미문학연구회, 2000. 상반기).
- 이석호, 「민족문학과 근대성 -옹구기의 『마티가리』를 중심으로」, 『안과밖』 제8호(영미문학연구회, 2000. 여름).
- 이승렬, 「분신의 정치학 -스피박의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읽기」, 『현대시사상』 제26호(고려원, 1996. 봄).
- 이해년, 「한국문학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연구 -아리랑, 태백산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26집(한국문학회, 2000. 6).
- 이홍렬, 「달콤한 유혹과 고통스런 버터읽기 : 탈식민주의적 책읽기의 한 방법」, 『외국문학』 제38호(열음사, 1994. 봄) .
- 임현진, 「사회과학에서의 근대성 논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새길, 1997).
- 장수익, 「식민주의를 벗어나는 고뇌의 여로」, 『현대시사상』 제26호(고려원, 1996. 봄).
- 정정호, 「전지구화 시대의 '탈'식민 이론의 과제 -탈근대 생태론으로 '근대'를 포월하기」, 『비평』 제3호(비평이론학회, 2000. 하반기).
- 정태현,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화 모순과 그 실체」,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역사비평사, 1996).
- 정형철, 「다름의 정치학 -식민담론 비판으로서의 글쓰기를 위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제17호(1995. 여름).

- 조보라미, 「최인훈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고찰」, 『관악어문연구』 제25집(서울대 국문과, 2000. 12).
- 조형근, 「역사 구부리기 :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새길, 1997).
- _____, 「탈식민주의 시대의 글쓰기와 채워기」 특집을 엮으며, 『외국문학』 제31호(열음사, 1992. 여름).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여이연, 2001).
- 하정일, 「민족문학론의 역사와 탈식민성」, 『비평』 제3호(비평이론학회, 2000. 하반기).
- 하정일, 「복수(複數)의 근대와 민족문학」, 『민족문학사연구』 제17호(민족문학사학회, 2000. 하반기).
- 하정일, 「분단의 형이상학을 넘어서 -황석영론」, 『실천문학』 제62호(실천문학사, 2001. 여름).
- 하정일, 「탈식민의 시인 -김남주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시와 사람』 제21호(시와사람사, 2001. 여름).
- 하정일, 「한국문학과 탈식민」, 『시와사상』 제30호(2001. 여름).
- 하정일, 「염상섭 혹은 탈식민문학의 세계성」, 『실천문학』 제66호(실천문학사, 2002. 여름).
- 姜尙中(이경덕 · 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77).
- Xiaomei Chen(정진배 · 김정아 역), 『옥시덴탈리즘』(강, 2001).
- Bart Moore-Gilbert(이경원 역),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한길사, 2001).
- Bill Ashcroft ·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이석호 역),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민음사, 1996).
- Chinua Achebe(이석호 역), 『제3세계 문학과 식민주의 비평 -희망과 미래』(인간사랑, 1999).
- Diane Macdonell(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한울, 1992).
- Douglas Robinson(정혜욱 역), 『번역과 제국 - 포스트식민주의 이론 해설』(동문선, 2002).
- Edna Aizenburg(김명주 역), 「보르헤스, 탈식민주의 이론의 선구자」, 『외국문

- 학』 제31호(열음사, 1992. 여름).
- Edward W. Said(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1991).
- Frantz Fanon(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인간사랑, 1998).
- Gayatri Spivak(윤정미 역), 「세 여성의 텍스트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외국문학』 제31호(열음사, 1992. 여름).
- Gayatri Spivak(정혜옥 역), 「국제적 틀에서 본 프랑스 페미니즘」,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현대미학사, 2001).
- Helen Tiffin(성경준 역), 「탈식민주의의 문학과 반언술행위」, 『외국문학』 제31호(열음사, 1992. 여름).
- Houston Baker(김명주 역), 「캘리번의 삼중의 역할과 탈식민주의」, 『외국문학』 제31호(열음사, 1992. 여름).
- Immanuel Wallerstein(김시완 역), 『변화하는 세계체제 : 탈아메리카와 문화 이동』(백의, 1995).
- Leela Gandhi(이영옥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현실문화연구, 2000).
- Linda Hutcheon(강우성 역),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적 상황 : 산적한 난제들」, 『외국문학』 제43호(열음사, 1995. 여름).
- Margaret Drabble(최영 역), 「탈식민주의 상황에서 글쓰기」, 『경계를 넘어 글쓰기 - 다문화세계 속에서의 문학』(민음사, 2001).
- Ngugi Wa Thiong'o(이석호 역),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인간사랑, 1999).
- Sara Suleri(이효석 역), 「피부 깊이 만큼의 여자 -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적 조건」, 『오늘의 문예비평』 제17호(1995. 여름).
- Stephen Slemon(강규한 역), 「제국의 기념비들 - 탈식민적 글쓰기의 알레고리와 반언술 행위」, 『외국문학』 제31호(열음사, 1992. 여름).
- Audul JanMohamed,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ist Literature」, 『Critical Inquiry』 12(Autumn, 1985).
- Michel Pêcheux, 『Language, Samantics and Ideology』(trans:Harbans Nagpal, St. Martin's Press, 1982).

<Abstract>

A Research on the History of Criticism and Study of Postcolonialism in the Korean Modern Literature

Ko, Hyun-Chul

This thesis aims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criticism and study of postcolonialism in the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it aims to investigate the 'problematique' of criticism and study of postcolonialism in the Korean modern litera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s:

First,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theoretical criticism and study of postcolonialism. This investigation consists of the translation and arrangement of theoretical criticism and study of postcolonialism; the term, division and strategy of postcolonialism; the context of theoretical criticism and study of postcolonialism.

Second, it investigates the practical criticism and study of postcolonialism. It consists of the practical criticism and study of the Korean modern poems, novels and short-stories.

Third, it investigates the 'problematique' of criticism and study of postcolonialism. This investigation consists of the relation between postcolonialism and 'modernity'; the relation between postcolonialism and 'multiculturalism'; the relation between postcolonialism and 'cultural hybridity'; the relation between postcolonialism and 'feminism', etc.

Fourth, it is claimed that the study on the criticism and study of postcolonialism in the Korean modern literature is made on the base of the 'problematique' of criticism and study of postcolonialism.